

# 항문 출혈, 초기치료 놓쳐선 안돼

## 의료 킬럼 치질

항문질환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항문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치핵, 치루, 치열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항문 소양증과 더불어 항문이 돌출되는 치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항문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다. 더위로 인해 항문의 혈관이 확장되면 치질이 악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항문 위생 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도 심해질 수 있다. 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주재균 교수의 도움말로 치질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자.



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주재균 교수가 항문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정의  
일반적으로 치핵은 항문과 하부직장부위의 정맥이 커지고 늘어나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문 출혈로 내원하게 되는 데 실제 출혈의 양은 많지 않고 똥이 빠져오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돌출되는 종괴(종양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은 과식, 과로, 과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항문 주위가 붓는 항문주위정맥혈전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기 치료도 치핵의 절제술이 아닌 식이요법이나 좌욕 등을 통한 고식적인 요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잘못된 배변습관, 직업적 요인,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해 항문에 지속적인 자극과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한 번 발생한 치핵은 호전 없이 점점 심해진다.

◇치료  
수술의 방법은 다양하다. 예전의 고전적인 수술 방법 뿐 아니라 기구를 이용한 수술법 등 환자의 증상과 경중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문질환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수술시기를 조

잘못된 배변습관·식습관 원인  
수분·섬유질 섭취, 좌욕 도움  
전문가와 상담 통해 완치 모색

을한다. 단순 출혈이나 항문이 목직한 느낌 등의 증상이 가빠지면 수분과 섬유질 섭취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아침, 저녁으로 좌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증상을 인지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상담과 처치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치질을 흔하고 쉬운 질환으로 오인해서 사사로운 방법이나 자가 치료를 하다 보면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초기에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또한 증상이 심해져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추가적으로 본인 이식습관, 변습관을 변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어 주

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집안 생활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홍수로 항문질환에 대한 내용도 찾기 쉬운데 잘못된 정보와 자신의 증상과는 전혀 다른 오진을 통한 건강의 위해를 받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규칙적인 식사, 항문 정결, 섬유질을 포함한 식이요법 등 평소 생활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과음, 과로,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항상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코로나시기도 이겨내고 자신의 항문 건강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



도움말  
주재균 교수  
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선대병원은 최근 광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모범 인증병원으로 선정됐다. /조선대 제공

## 조선대병원, 최우수 뇌졸중센터 모범인증병원

### 대한뇌졸중학회 인증 평가

조선대병원이 최근 광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뇌졸중센터 모범인증병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사업, 뇌졸중센터 인증사업 등을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에 오고 있으며 2022년 학회인증 뇌졸중센터 평가를 통해 조선대병원을 최우수 인증병원으로 선정했다.

조선대병원 뇌졸중센터는 2007년 급성뇌졸중 환자 치료 프로그램인 'BEST 시스템'을 개

발한 이래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뇌졸중 의심 환자를 응급실에서 지체 없이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이 중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응급 재관류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08년 호남지역 최초로 전문의료진이 상주하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설해 급성기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이래, 최우수병원을 한번도 놓치지 않고 지역사회 급성 뇌졸중 치료에 있어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주민정신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협 제공

## 건강관리협회-광주정신보건센터, 업무협약

### 정신건강 인식개선·서비스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주민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원활한 진료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분야 협력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건강 검진 제공 및 상호협력 ▲그 밖에 양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김계환 본부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인프라를 교류하고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이나라 기자

## 전남대병원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내달 8일 전남대의대 덕재홀  
'코로나19·정신건강' 주제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7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오는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동구 학동 전남대 의학대학 덕재홀에서 '코로나19 감염 장기화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

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장기화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캐나다 웨스턴대 슐릭의과대, 미국 뉴욕 정신분석상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 정신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과 정신건강 위기'라는 주제로 자살, 정신건강 관리, 이

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치료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미국 뉴욕에서 정신분석상담가로 활동하는 권혜경 박사의 '코로나 시대의 다미주신경이론(polyvagal theory)의 임상적 의의', 캐나다 웨스턴대 슐릭의과대 이재현 교수의 '캐나다의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3부에서는 전남대병원 감염내과 박경화 교수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남대병원 김선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코로나 감염 및 의료진들의 치료를 위해 진료실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주제가 준비돼 있다. /이나라 기자

###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 보리굴비정식

다미정 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의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